

예비치료사 내적역량강화를 위한 정서적 민감성 향상 프로그램

■ 과목 소개

본 프로그램은 음악정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심리정서 목표의 음악치료 세션 운영을 위한 치료사의 정서적 민감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음악을 통한 정서의 변화과정을 스스로 체험하고, 감정의 이해와 자기정서에 대한 탐색 및 표현, 그리고 임상으로의 적용 방안을 알아본다.

■ 운영 전공: 음악치료교육전공

■ 필요성 및 목적

정서적 민감성은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에 민감하게 공감하는 것으로, 몸-마음-정신에 대한 자기 앎을 통해 보다 수월하고 적극적으로 현실 삶에 기능하도록 돕는다. 음악치료사가 정서적 민감성이 낮을 경우, 치료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들에게 비효율적 중재채택, 공감실패, 심리적 소진 등 부정적 기능을 야기한다. 평소 자신의 정서를 돌보고 민감성 향상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기능하는 치료사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음악과 심상을 중심으로 한 체험적 방법을 통해 치료사의 정서적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프로그램 개요: 수강생 20명 이내

차시	일시 및 수업형태	주제	세부 내용		준비
1	9/30(금) 18:30-20:30 대면수업	정서적 민감성의 이론적 이해	1부	강의: 정서적 민감성 정의와 필요	음향장비, 그림도구
			2부	강의: 치료과정에서 정서적 민감성	
2	10/7(금) 18:30-20:30 대면수업	자기 내면에 대한 알아차림	1부	강의: 내면의 듣기(inner listening) 기술이란?	음향장비, 그림도구
			2부	체험: 자기 내면 듣기 음악과 심상체험	

- 수강생은 참여 시 그림도구(A4용지 또는 도화지 + 크레파스 또는 파스텔)를 준비해야 함

■ 평가 및 과제: 출석 및 self-work note 제출(self-work note는 수업에서 제공됨)

■ 기대 효과

인간의 신체, 심리, 영적 건강을 도모하는 건강관련 전문가들은 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다각적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악치료교육 전공생들은 기존 교육 과정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련 받고 있으나, 집중적 체험의 방법은 현 교육체계 내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체험적 교육방법 중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인간건강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서과정'에 관한 이해이며, 이에 비교과과정의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관련 예비전문가의 정서과정에 관한 체험적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상 실제에서 질 높은 공감 역량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한다.